

1. 전시개요

● '월트 디즈니의 앨리스는 잊어라!',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전세계 앨리스 명장면 & 초판본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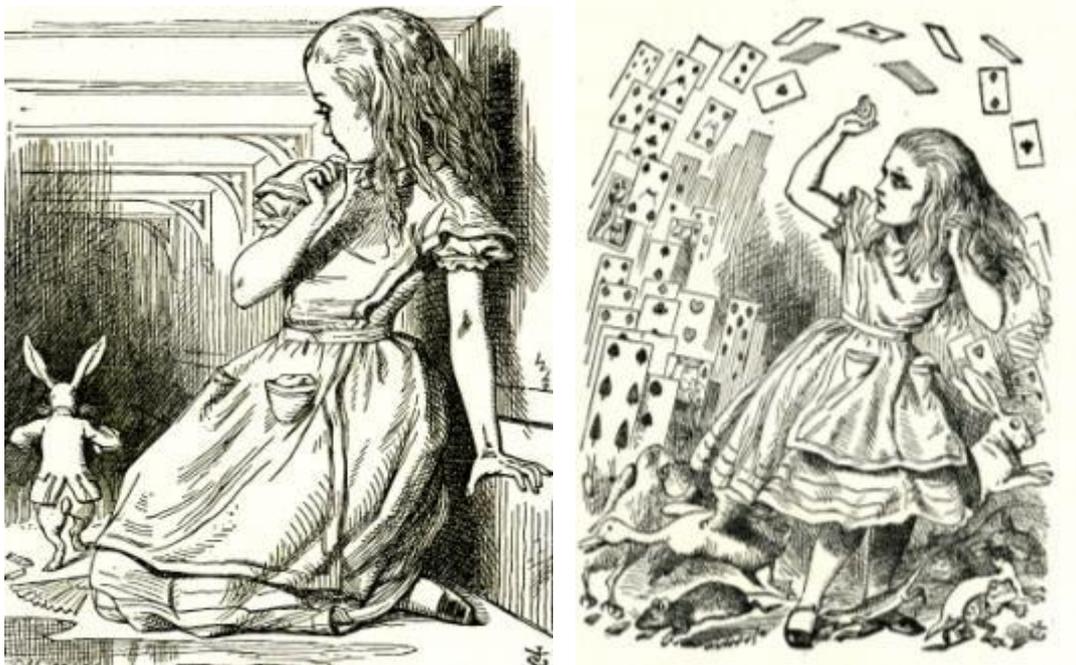
● 1866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美초판본을 비롯 1900년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앨리스 책들 중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초판본 100여권이 소개되며, 우리나라 최초인 계몽사 초판(1961)도 소개된다. 뿐만 아니라 팝업북, 사진책, 일러스트, 관련 빈티지 인형 등 100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앨리스를 선보인다.

●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한 권의 책을 통해 150년의 일러스트와 출판의 역사, 시대별 유행과 사회, 경제, 문화의 변화까지 살필 수 있다.

전시제목	<u><마이 페이버릿 앨리스></u> :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한 전세계 앨리스들 <u>My Favorite Alice</u> : Alice, we never met yet around the world
장소기간	롯데갤러리 인천터미널점 4. 5(금) ~4.28(일) / 롯데갤러리 청량리점 5. 2(목) ~ 5. 26(일)
관람시간	백화점 운영시간과 동일, 휴점일 휴관
전시작가 및 작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 테니얼&루이스 캐럴 초판본(1866,美), 블랑쉬 맥매너스 초판본(1899), 피터 뉴웰 초판본(1902), 마리아 루이스 커크 초판본(1904), 밀리센트 소어비 재판본(1907), 아서 래컴 초판본(1907), 해리 로운트리, 애트웰, 찰스 피어슨 등 1900년대 초판 희귀도서 60여권. ● 기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관련 빈티지 팝업북, 빈티지 인형, 장난감 40여점 ● 살바도르 달리, 쿠사마 야요이 등 아티스트 그림책 및 판화, 앤서니 브라운, 무민작가 토베 안손, 베리 모저, 랄프 스테드만, 김민지(한국) 등의 현대도서 40여권 ● 한국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계몽사 초판본 1961,1974, 1978년 판 ● 설치작가 이지영의 설치작품 ● 꿈의 인형공장 글립(Glib)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주요 장면연출 인형전시
부대행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앨리스 책 도서관 & 어린이 컬러링 체험 프로그램 상설 진행 ● 빈티지 책 체험하기 4/6, 13, 20(土) 15:00, 참가비 1000원 ● '21c 컬렉터' 희귀서적컬렉터(성미정대표)의 특별강연 4/27(土) 15:00, 참가비 1000원 ※ 문 의 : 롯데문화센터 인천터미널점 ※ 접 수 : 롯데문화센터 홈페이지 -> "앨리스" 또는 "빈티지" 검색 후 강좌신청
담당자	롯데갤러리 성운진 큐레이터 010-3893-3017 / 02-2118-2787
주소	롯데갤러리 인천터미널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연남로 35(관교동)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 5층 032-242-2987~8
웹하드	www.webhard.co.kr ID: lottegallery1 / PW:1111 <마이 페이버릿 앨리스>폴더

2. 전시내용

롯데갤러리 인천터미널점은 오는 4월 5일부터 한 달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초판본 전시를 진행한다. ‘앨리스’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루이스 캐럴이 쓰고 존 테니얼이 삽화를 그린 1866년 앨리스 초판본을 비롯하여 아서 래컴, 블란쉬 맥머너스, 피터 뉴웰 등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그린 1900년대 유명 삽화가들의 초판본, 살바도르 달리, 쿠사마 야요이, 토베 안손 등 예술작가의 그림책 초판본과 우리나라에는 소개되지 않은 예술성 높은 전세계 앨리스 초판본 100여권을 소개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해리포터에 해당하는 인기를 누렸던 당시 앨리스의 유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시대별 관련 제품(빈티지 인형, 상품 등)이 전시되며 한국의 대표적인 앨리스 일러스트작가 김민지의 대표작, 설치작가 이지영의 <앨리스의 정원>작품과 글립(Glib, 꿈의 인형공장)이 제작한 구체관절 인형으로 해석된 앨리스의 주요 장면들이 전시의 재미와 깊이를 더한다.



존 테니얼 그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1866 초판본, 미국(애플턴 앨리스)

영국 빅토리아 시대, 옥스퍼드 대학의 내성적인 수학자 루이스 캐럴(1832-1898)이 앨리스 리델이라는 소녀에게 강가에서 즉흥적으로 들려준 이야기로부터 시작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1866)>는 150년간 많은 작가와 화가들에게 도전과 영감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존 테니얼(John Tenniel, 1820~1914)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첫 일러스트를 그린 후 인쇄와 출판의 발전과 더불어 많은 화가들이 스스로 이상한 나라를 모험하며 자신만의 앨리스를 창조해 왔다. 현대에 이르기까지 앨리스 증후군, 앨리스 비즈니스라고 불리며 주인공과 등장 캐릭터가 매번 다르게 변주되어 다양한 그림책과 상품들이 나오는 유일무이한 동화의 주인공일 것이다.



(좌)아서 래컴 1907년 초판본, 영국 (중)찰스 로빈슨, 1907년 초판본 (우) 존 테니얼 1866년 초판본 (애플턴 앨리스)

앞선 예술성과 비즈니스 감각을 가지고 일러스트의 세계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이루어낸 아서 래컴(Arthur Rackham, 1867~1939), 존 테니얼 이후 최초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그렸던 여성 일러스트레이터 블란쉬 맥머너스(Blanche Mcmanus, 1869~1935), 〈Hole book〉을 비롯하여 입체적인 형태의 책을 최초로 만들었던 미국 일러스트 황금기의 대표 일러스트레이터 피터 뉴웰(Peter Newell, 1862~1924), 루이스 캐럴이 찍은 앨리스 사진을 보고 가장 먼저 검은 단발 머리 앨리스를 그린 찰스 로빈슨(Charles Robinson, 1870~1937)의 초판 등 1950년 이전 60여권에 이르는 전세계 초판본과 일러스트를 전시한다.

1950년대 이후 현대의 작가로는 초현실주의 화가로 명성을 떨친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 1904~1989), 땡땡이 작가로 유명한 쿠사마 야요이가 그린 앨리스를 포함,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몽환적 세계라는 틀에서 벗어나 당시 영국의 정치적, 사회적 이슈를 반영해 그린 영국의 랄프 스테드먼(Ralph Steadman, 1936~), 앨리스가 등장하지 않은 앨리스를 그린 미국의 판화가인 배리 모저(Barry Moser, 1940~) 등 다양한 관점에서 창조된 각양 각색의 앨리스가 전시되며, 이 외에도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 동유럽 등에서 각자의 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아 탄생한 주요한 일러스트레이터 40여명의 빈티지 그림책과 아름다운 삽화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한국 최초로 소개되었던 계몽사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1961년 초판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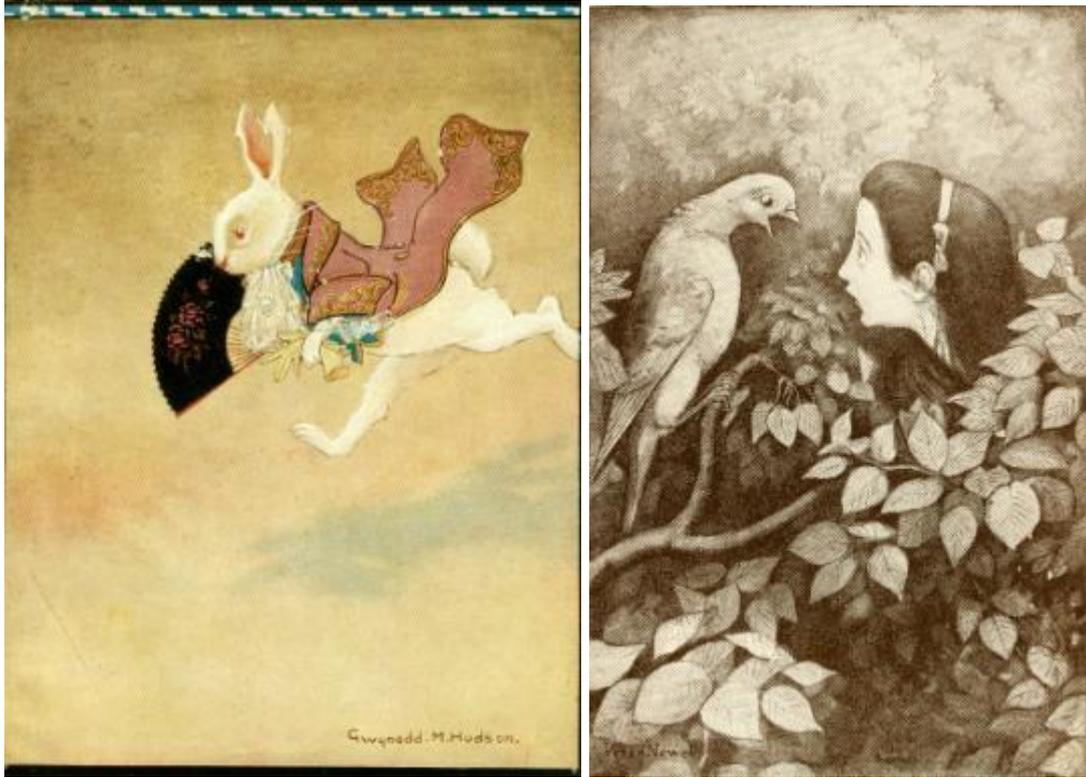


살바도르 달리 그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판화, 1969년 초판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150년간, 출판, 광고, 상품 등 문화예술계에 가장 많은 영감을 준 동화책이 라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앨리스는 월트 디즈니가 그린 금발의 긴 머리 소녀로 각인되어 있지만, 각자 일러스트레이터들의 해석과 개성에 따라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그려진 앨리스는 우리의 선입견을 과감하게 깨뜨린다. 뿐만 아니라 1890년~1920년대 당시 인쇄 및 출판업의 황금기에 제작된 아름다운 앨리스 책과 1930~40년대 세계대전과 대공황 때 만들어진 간소화 된 책을 비교해 보면 당시 사회, 경제 변화를 포함한 출판의 역사도 살필 수 있다.

이번 전시의 구성은 시대별로 ‘1910년 이전 : 앨리스의 탄생’, ‘1910~50년: 불황’, ‘1960년대 이후 : 새로운 시도’로 크게 나뉜다. 시대별 구분 이외에도 ‘단발머리 앨리스’, ‘영미 여성 일러스트레이터’, ‘팝업북과 희귀서적’, ‘세계의 앨리스&한국의 앨리스’ 등 섹션을 구분하여 전시된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한 권의 이야기를 통해 150년간의 일러스트와 출판의 역사, 그리고 각종 상품, 인형으로 생산된 시대별 앨리스까지 살필 수 있는 이번 전시에서 여러분만의 앨리스를 만나보기 바란다. 부대행사로 매주 토요일마다 100년 이상된 책들을 직접 만져보는 ‘빈티지 북 체험하기’ 행사가 진행되며, 4월 27일에는 이번 전시 대부분의 소장작품들을 컬렉션한 소장자에게 ‘고서적과 컬렉션의 숨은 이야기’를 들어본다. 신청은 롯데문화센터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인원이 한정되어 있으니 서두를 것. 본 전시는 롯데갤러리 인천터미널에서 전시 후 롯데갤러리 청량리점으로 이어진다.



(좌)기네드 허드슨, 1928 초판본 (우)피터 뉴웰 1902 초판본



랄프 스테드만 그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1986년 합본 초판(1967년 초판)

주요 전시작품

[초판본]

1. 루이스 캐럴/존테니얼 초판본



루이스 캐럴 글, 존 테니얼 그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Alice's Adventures in Wonderland>
애플턴 앨리스 APPLETON Alice, 1866년 미국 초판본/ 감정가 20,000,000 원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하 세계의 앨리스>를 책으로 출판하라는 권유가 거듭 되자 루이스 캐럴은 출판업자 맥밀란을 만나게 된다. 맥밀란은 루이스 캐럴의 동화에 관심을 보였고 두 사람은 책을 출판하기로 한다.

초판 2,000 부는 1865년 6월에 인쇄되었다. 맥밀란 출판사는 50권의 책을 저자인 루이스 캐럴에게 미리 보낸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존 테니얼이 루이스 캐럴에게 '그림의 인쇄가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편지를 보냈다. 활자 잉크가 너무 진해 뒷면에 비쳐 그림을 망쳐 놓았기 때문이다. 캐럴과 맥밀란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초판 2,000 부를 폐기, 폐지로 판매하기로 한다.

캐럴은 제본 되지 않은 낱장 형태로 남아 있던 초판 1950 부를 폐지로 처분하는 대신에 미국의 애플턴 출판사(D. Appleton & company)에 판매했는데 이것이 '애플턴 앨리스'라고 불리는 미국 초판본이다. 이 책은 권두에 'D. APPLETON AND CO. 1866'이라고 새로 새기고 뉴욕으로 향하는 배에 실렸다. 이번 전시에 나오는 이 애플턴 앨리스는 레어북 컬렉터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컬렉터들이라면 누구나 탐내는 귀한 수집품 목록에 들어가게 되었다.

한편, 루이스 캐럴이 초판 배부를 중단하기 전에 출판사로부터 50 부를 받아 고급스럽게 제본을 하여 지인들에게 보냈던 책들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책 가운데 가장 고가의 책들로 초판 중의 초판이라 불리며 23 부가 남아 있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두 번 경매가 이루어졌는데 약 160만~200만 달러(약 18억~23억)에 낙찰되었고 6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박물관이나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2. 1910년 이전의 앨리스

19세기 미국에서는 출판사가 저작권 제한 없이 영국 도서를 출판할 수 있어서 다양한 출판사에서 발행된 미국판 앨리스를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책이 블란쉬 맥머너스 Blanche McManus, 1869~1935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이다. 1907년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저작권이 풀리며 그 해에만 최소 8권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출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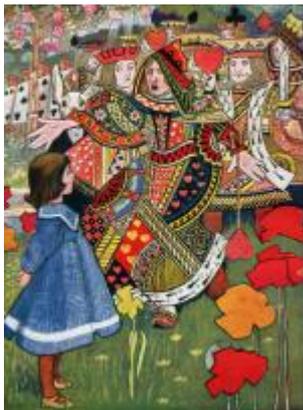


(좌)아서 래컴 Arthur Rackham, 1867~1939
일러스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1907년 초판본, 영국, 감정가
3,000,000 원

20세기 초 그림책 황금기를 이끌었던 아서 래컴이 그린 앨리스는 의인화된 나무들과 어두운 색조로 음산하면서도 마법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도리스 제인 도메트’라는 실제 소녀를 모델로 그린 아서 래컴의 앨리스는 조금 더 성숙해 보인다. 존 테니얼의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에서 부딪히는 상황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 어린 소녀로 그려진 반면 아서 래컴의 앨리스는 차분하고 강한 의지를 가진 모습으로 그려진다. 위협적으로 휘날리는 카드 사이에서도, 미치광이들의 티파티에서도 한결같이 의연한 소녀로 표현된다.

그는 종종 동화 속에 현실성을 부여했다. 앨리스가 입은 분홍 장미 무늬 드레스는 도리스 도메트의 어머니가 디자인한 것을 그렸으며, 미친 티 파티의 흥차 잔과 차 주전자는 아내가 애용하던 것을 그렸었다. 그는 때때로 자신의 그림에 카메라로 출연하기도 했는데 이 책에서는 미친 티파티 장면에서 매부리코에 안경을 걸친 모자장수로 등장했다.



(중)찰스 로빈슨 Charles Robinson, 1870~1937 일러스트
1907년 초판(1910년판), 영국, 감정가 1,200,000 원

영국에서 목판 인쇄공의 아들로 태어난 찰스 로빈슨은 형인 토마스 히스 로빈슨, 동생인 윌리엄로빈슨과 함께 영국 일러스트계에 큰 족적을 남겼다. 삼형제 중 찰스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어린이 시의 화원(1896년)>의 일러스트로 명성을 확립하고 이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동화나 우화집 등을 포함 약 100여 권의 그림책의 일러스트를 담당했다.

1907년에 출판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아르누보 스타일의 일러스트의 프레임과 텍스트의 배치가 뛰어나다. 그는 루이스 캐럴이 찍은 앨리스의 사진을 보고 최초로 단발머리 앨리스를 그렸고 책의 각 페이지마다 6명의 자녀들을 모델로 하여 사랑스러움이 넘치는 작은 흑백 일러스트를 남겼다. 푸른색 세일러복의 앨리스가 이채로운 이 책은 112개의 압도적인 양의 흑백 일러스트와 8장의 컬러 일러스트를 포함하고 있다

3. 1910 년~1950 년대 : 불황

1930 년대 대공황으로 세계 경제가 얼어붙고 1950 년대까지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며 출판계도 극심한 불황을 겪었다. 앨리스를 비롯하여 이 시기에 출판된 대부분의 책들은 질 낮은 종이를 사용하거나 컬러 삽화의 수를 대폭 줄이는 등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팝업북이 유행한 것도 특징이다.



시드니 세이지 Sidney Sage, 1934 년 초판본,
감정가 250,000 원

이 책은 1930 년대 후반 독일에서 최초의 커팅 팝업북이 등장하기 전에 나타난 과도기에 놓인 책이다.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요약본이 실려 있다.

페이퍼 커팅 돌과 팝업북이 혼용된 팝업북으로 점선을 따라 종이를 뜯어 세워 팝업을 만드는 책이다. 앨리스의 등장 캐릭터들이 각 장면마다 그려져 있고 쉽게 세워지도록 일정 부분만 오려져 있다. 각 캐릭터들을 세우거나 접어서 장면을 완성하여 노는 페이퍼 커팅 돌과 비슷한 형태의 팝업북이다. 열악한 출판환경 속에서 어떻게든 팝업북을 만들어내고자 한 노력이 엿보인다.

4. 1960 년대 이후 : 새로운 시도

1960 년대에 들어서며 앨리스는 더 이상 책에 국한되지 않는다. 화가, 사진가, 연극, 연출 등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들에 의해 앨리스가 그려졌다. 그들이 그린 앨리스는 텍스트와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일러스트레이터들의 앨리스에 비해 자신들의 예술과 세계관을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들이 그린 자유롭고 개성 넘치는 앨리스들로 앨리스는 더욱 풍요롭게 진화했다.



배리 모저 Moser, 1940~,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한정본 1982 년,
미국, 감정가 600,000 원

미국의 유명 판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인 배리 모저가 그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는 지금까지의 책과는 해석이 전혀 다르다. 어른이 되어서야 이 책을 읽은 그에게 앨리스는 '악몽'으로 읽혔다. 따라서 그는 체셔 고양이를 털이 없는 스피그스 고양이로, 토끼의 모습도 굉장히 위협적으로 그린다. 또한 앨리스의 시점으로 화면을 구상하여 모든 등장인물들은 앨리스의 눈에 비친 모습으로 그려진다.

앨리스는 작가의 막내딸을 모델로 그리고, 모자장수는 친구를 모델로 했다. 이러한 그의 시도는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서 더 심화되어 하얀 기사는 루이스 캐럴, 험프티 덤프티는 닉슨 대통령을 모델로 그리게 된다. 그의 앨리스가 풍기는 불길하고 그로테스크 한 분위기는 흑백 판화에 의해 더욱 강하게 도드라진다.

5. 색다른 책&한정판의 출현

빅토리아 시대 산업혁명으로 책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며 책은 대중들도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되었다. 출판의 역사 속에서 불황기이든 호황기이든 좀 더 독특하고 새로운 책을 만들기 위한 시도는 늘 존재했다. 또한 남과 다른 책을 구매하고자 하는 수집가들도 항상 존재했다.



살바도르 달리 Salvador Dalí, 1904~1989
1969년 초판본, 2,500부 한정, 영국
감정가 8,000,000 원

달리의 앨리스는 권두 그림 1장과 12개의 장에 각 1장씩 총 13장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그림들은 달리가 초현실주의와 결별한 후 제작되었지만 흘러내리며 불안정한 묘사들은 여전히 환상적인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보여준다. 그림마다 등장하는

출범기를 하는 앨리스는 달리에게 있어 영원한 소녀의 상징으로 조각상으로 제작되기도 하였다. 미친 티파티에서는 달리의 대표작 ‘기억의 고집’에 등장하는 부드러운 시계 위에 티세트가 놓여 있어 재미를 준다.

달리의 앨리스는 특별 한정판(Deluxe Edition)과 일반 한정판 두 가지 버전이 있다. 일반 한정판은 2,500부 발행되었으며 서두의 그림 1장만 동판화로 제작했다. 특별 한정판은 200부 한정으로 13장 모두 동판화며 친필 사인이 들어 있다. 이 13장의 동판화는 별도의 세트로 구성되어 일반본과 달리 2권이 한 세트이다. 상자 또한 가죽으로 제작했다.



글래디스 페토 Gladys Peto, 1890~1977, 1930년(?) 손수건책 초판본, 영국, 감정가 2,800,000 원

1890년에 영국에서 출생한 글래디스 페토는 20대에 이미 일러스트레이터로 큰 성공을 거두고 패션 디자이너, 작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활약을 했다. 다양한 어린이 책과 달력, 의상 디자인 등에서 그녀는 대담하고 역동적인 선과 아름다운 색감으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간결하고 뛰어난 화면 구성과 선명한 색상 대비, 아르데코 풍의 선들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그려낸 손수건 책이다. 이 앨리스 손수건 책은 전성기의 그녀의 스타일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합지에 스테이플러로 제본 하고 앨리스의 유명 장면을 8개의 손수건으로 구성한 책으로 글래디스 페토의 개성이 잘 드러나 있다. 이 책은 책이라기 보다는 손수건 패키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손수건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드물어 그만큼 가치가 높다.

이 외에 전시에서는 [영미 여성 일러스트레이터 작가], [단발머리 앨리스], [세계의 앨리스&한국의 앨리스], [앨리스 사진집] 등으로 섹션을 나누어 전시된다.
